

따뜻한 시선으로 정화하고 기록하는

8월 나눔플로깅 참여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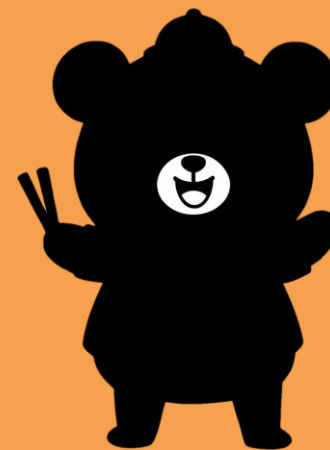
8. 14.(금) · 8. 26.(수) 오후 5:30 ~ 7:00 · 용산 동자동 쪽방 밀집 지역

장비 일체 지원

봉사 실적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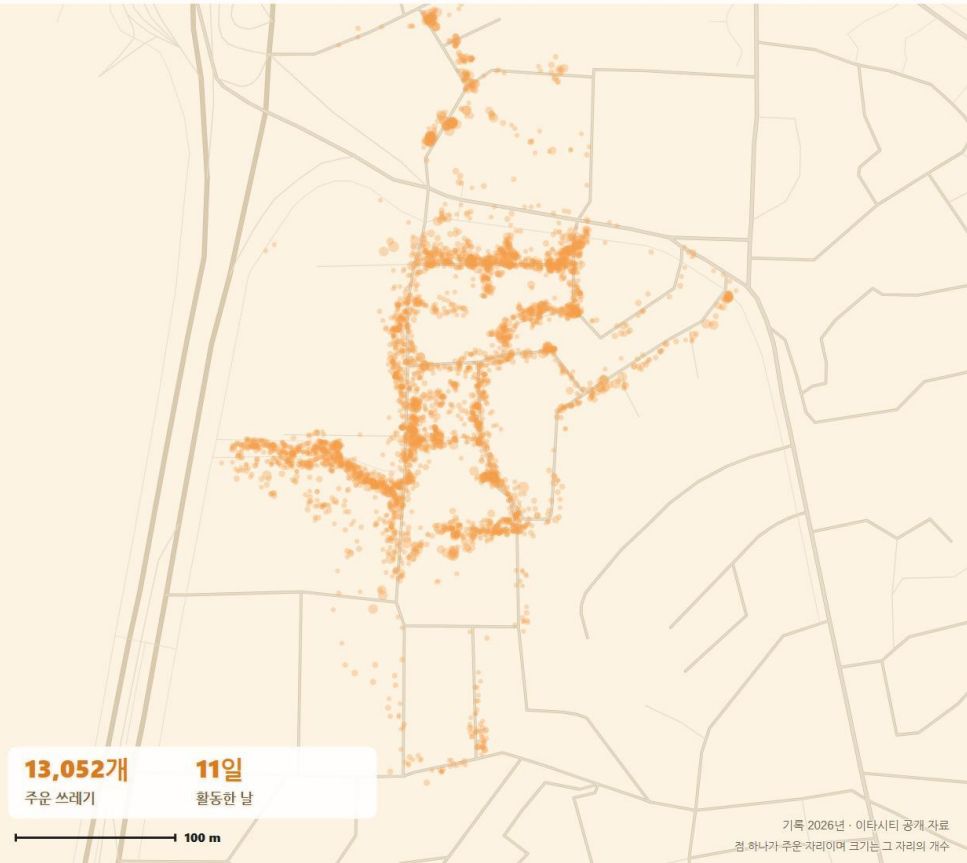
단체 참여 환영

사단법인 이타서울 · 서울특별시 시정활동 공유단체



나눔플로깅이란?

동자동에서 주운 자리
11일 동안 기록한 4,174건



매일 치워지는 길이 있고,
몇 년째 빗물받이가 그대로인 길도 있습니다.

나눔플로깅은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골목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줍고, 데이터로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환경 데이터 플랫폼 이타시티(ita.city)에 어떤 쓰레기가 얼마나 버려졌는지 기록
하고, 관심이 필요한 장소들을 알립니다.

한 번의 정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남아 도시의 변화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걷고 · 좁고 · 기록해요

01

걷고

동자동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동네의 장소와 변화를
발견해요.

02

좁고

골목의 쓰레기를 좁고,
주민들의 쉼터인 거리를
직접 가꿔요.

03

기록해요

이타시티(ita.city)로 위치·종류·양을
기록해, 도시 인프라 공백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요.

단순 정화를 넘어, 기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90분입니다.

왜 동자동인가 — 골목은 누군가의 거실입니다

서울에는 다섯 곳의 쪽방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 동자동은 서울역 바로 옆인데도 큰 도로와 높은 건물에 가려 큰길에서는 골목 안의 모습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한 평 남짓한 방이 모여 있어 환기가 어렵고, 여름이면 주민들이 방보다 골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방문을 나서면 바로 이어지는,
거실과도 같은 공간이죠."

주민들에게 골목은 잠시 바람을 쐬고 옆집과 인사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나눔플로깅은 이 골목을 함께 걸으며 소중한 쉼터를 정화하고, 골목에 깃든 따뜻한 일상을 다정한 기록으로 남깁니다.

골목 한 평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삶의 터전임을 알리고, **환경 배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모읍니다.



나눔플로깅이 특별한 이유

1

활동이 데이터로 남아요

GPS·쓰레기 기록이 쌓여 쓰레기통과 분리배출 인프라의 공백을 증명하고, 도시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2

동네의 이야기가 남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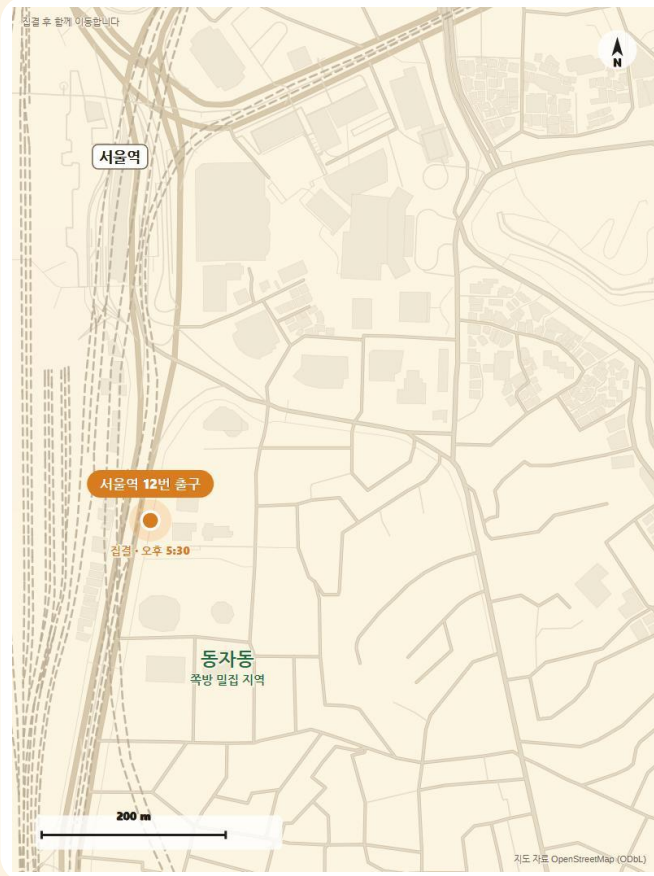
재개발 속에서 바뀌는 장소, 쪽방촌이 만들어진 과정, 거주민 보호 방안까지 — 걸으며 함께 이해하고 기록합니다.

3

동등하고 건강한 연결이 남아요

'환경 데이터 기록'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진 참여자들과의 네트워킹, 그리고 1365 자원봉사 실적까지 남습니다.

8월 활동 안내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 · 동자동 일대

일시

5차 2026. 8. 14.(금) / 6차 2026. 8. 26.(수) 오후 5:30 ~ 7:00 (90분)

장소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 밀집 지역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

내용

쪽방 밀집 지역 일대 플로깅 및 활동 기록

대상

개인 · 동아리 · 기관 봉사단 누구나 (단체 단위 환영)

참가비

참가비 없음

혜택

활동 장비 일체 지원 · 봉사 실적 인정 · 데이터 리포트

마감

각 회차 전날 오후 11:59 (8/13 · 8/25)

함께하시는 단체·기관이 얻는 것

봉사 실적

참여자 전원 자원봉사 실적 인정.
단체 명단은 일괄 처리로 지원합니다.

활동 데이터 리포트

단체별 수거량·기록 데이터 정리본 제공.
사회공헌·ESG 보고와 동아리 증빙에 바로 활용.

활동 사진 제공

단체 활동 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기관 홍보물에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건강한 네트워킹

'환경 데이터 기록'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진
참여자들과의 동등한 연결이 남습니다.

단체 참여(3인 이상)는 단체명·인원·대표 연락처만 메일로 보내주시면 일괄 등록해 드립니다.

참여 부담은 0입니다

이타서울이 다 준비합니다

집게 · 장갑 · 봉투 등 활동 물품 일체와 기록 도구, 안전 안내까지 모두 이타서울이 준비합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편한 복장과 운동화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활동 흐름 (90분)

17:30

집합 · 오리엔테이션 (활동 취지, 안전·기록 안내)

17:50

조별 플로깅 + 이타시티 데이터 기록

18:40

수거물 정리 · 기록 마무리

18:50

소감 나눔 · 단체 사진

19:00

해산

우리가 함께 지키는 약속

쪽방촌은 누군가의 집 앞이자 일상의 공간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다음을 함께 지킵니다.

'돕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웃으로

거주민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이웃으로 대합니다.

사진은 공간과 활동 중심으로

주민이 식별되는 사진은 촬영하지 않으며, 단체 사진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진행합니다.

골목에서는 조용히

주거 공간을 들여다보지 않고, 생활 소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있어 기관·학교 봉사단도 안심하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활동,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나눔플로깅 활동 기록 — 골목에서 줍고, 기록하는 90분

▶ 활동 영상 보기 [instagram.com/reels/DbpsRQ4JJ7Y](https://www.instagram.com/reels/DbpsRQ4JJ7Y)

이타서울은

환경 행동을 자원으로 바꾸어 복지 사각지대로
흐르게 하는 **환경복지단체**입니다.

- 2018년 설립 · 지정기부금단체 (2019)
- 서울특별시 시정활동 공유단체 — 도심 환경개선·환경 배려 지역 봉사
- 행정안전부 1365 연계 — 전국 42개 자원봉사센터 봉사시스템 무상 지원
- 해양수산부 반려해변 수도권 코디네이터(2022~) · 해수부 장관표창
- 헤럴드 에코 어워드 대상(2022) ·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사회공공 부문(2023)

활동 기록

2026년 4월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540명

총 참여

318개

정화 골목

42,412개

쓰레기 데이터

+ 쪽방 밀집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따숨이 서포터즈 (2023~) 운영

8월 14일과 26일 저녁, 동자동 골목에서 만나요

함께 걷고, 즐기고, 기록하는 90분이 이 동네의 다음을 바꿉니다.

신청 마감 각 회차 전날 오후 11:59

신청 폼 [www.ita-](http://www.ita-works.kr/apply/3d00124ed1a82561a39b8579917e833e74871e19378a68017e964a4fbdbfef02)

works.kr/apply/3d00124ed1a82561a39b8579917e833e74871e19378a68017e964a4fbdbfef02

단체 참여 단체명·인원·대표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일괄 등록

문의 itaseoul@naver.com · 070-8015-4120 · 카카오톡 채널 «이타»

